

*Berchemia*

# 망개나무

망개나무라는 이름을 들으면 항상 정겹다. 우리 산야 어디에선가 많은 나무들 틈에서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름이다.

망개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1935년으로 기록된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 원로 식물학자가 충북 보은의 속리산 법주사 가는 길목에서 발견하시어 비로소 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때만 하여도 망개나무는 한국 특산식물로 알려졌다. 일본과 중국 남부지방에서도 분포가 확인되어 특산식물에서는 그 명단이 빠졌지만 희귀 멸종위기식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속리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던 망개나무는 이 나무의 껍질을 달여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엉터리 이야기로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가 잘리면서 급기야 고사하기에 이르러 기념물은 없고 천연기념물 표석만 남아 있다. 그마저도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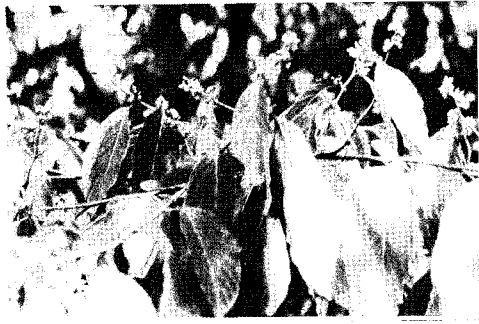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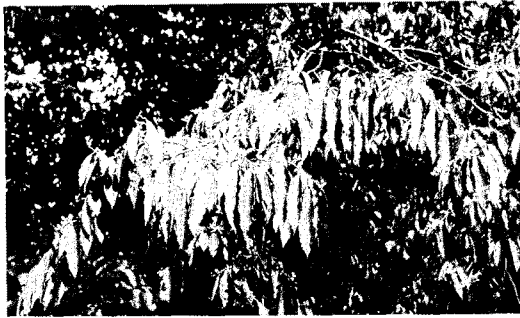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실)

- ▶ 과명 : 갈매나무과
- ▶ 학명 : *Berchemia berchemiaefolia*
- ▶ 영명 : Berchemia
- ▶ 일명 : とくらのき

## 1. 생태적 특성

지리적으로는 일본과 중국대륙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보은군 속리산, 괴산군 청천면과 제천시 송계리, 주왕산의 표고 400m이하의 계곡에서 암석지에 자생하는 낙엽활엽 소교목으로 수고 15m, 직경 40cm까지 자란다. 졸참나무, 갈참나무, 사시나무, 버드나무등과 함께 혼생하며 내한성이 강하여 서울 지방에서도 월동이 잘되고 토심이 깊은 적윤성 토양을 좋아하며 적습지에서는 간혹 천연발아도 되어 어린 묘목을 발견할 수 있다.



## 2. 형태적 특성

원줄기는 곧게 자라지만 가지는 늘어지며 자라고 수피에는 세로로 갈라진 무늬가 보기에 좋다. 잎은 어긋나고 길이 7~12cm, 넓이 3~5cm의 긴 타원형이며 잎자루는 길이 6~10mm로서 털이 없다. 꽃은 양성으로 6월에 총상화서(總狀花序)에 황녹색으로 피며 지름 3.0~3.5mm 정도이다. 열매는 가마귀배개 열매와 비슷하고 길이 7~8mm로 긴 타원형이며 9월에 노란색에서 홍색으로 익는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세계적으로 희귀한 수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자생지 대부분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줄기의 껍질이 독특하고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색깔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신록이 우거진 여름철에도 가을의 단풍 또한 아름다워 관광가치가 높은 수종이다. 생장이 신속하고 군집성이 좋아 공원에 군식하여도 좋다.

## 4. 번식법

자생지의 대부분이 암석지여서 종자가 떨어져도 발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종자의 배 형성율이 낮기 때문에 발아율이 낮다. 일반적으로 9월경 종자를 채취하여 겉 껍질을 벗긴 후 깨끗이 물로 씻은 다음 노천매장 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는데 발아가 되지 않더라도 묘상관리를 꾸준히 하면 그 다음해에도 발아가 되는 경우도 있다.

## 5. 그 밖의 용도

망개나무는 불에 잘 타는 성질이 있어 자생지에서는 펄감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